

4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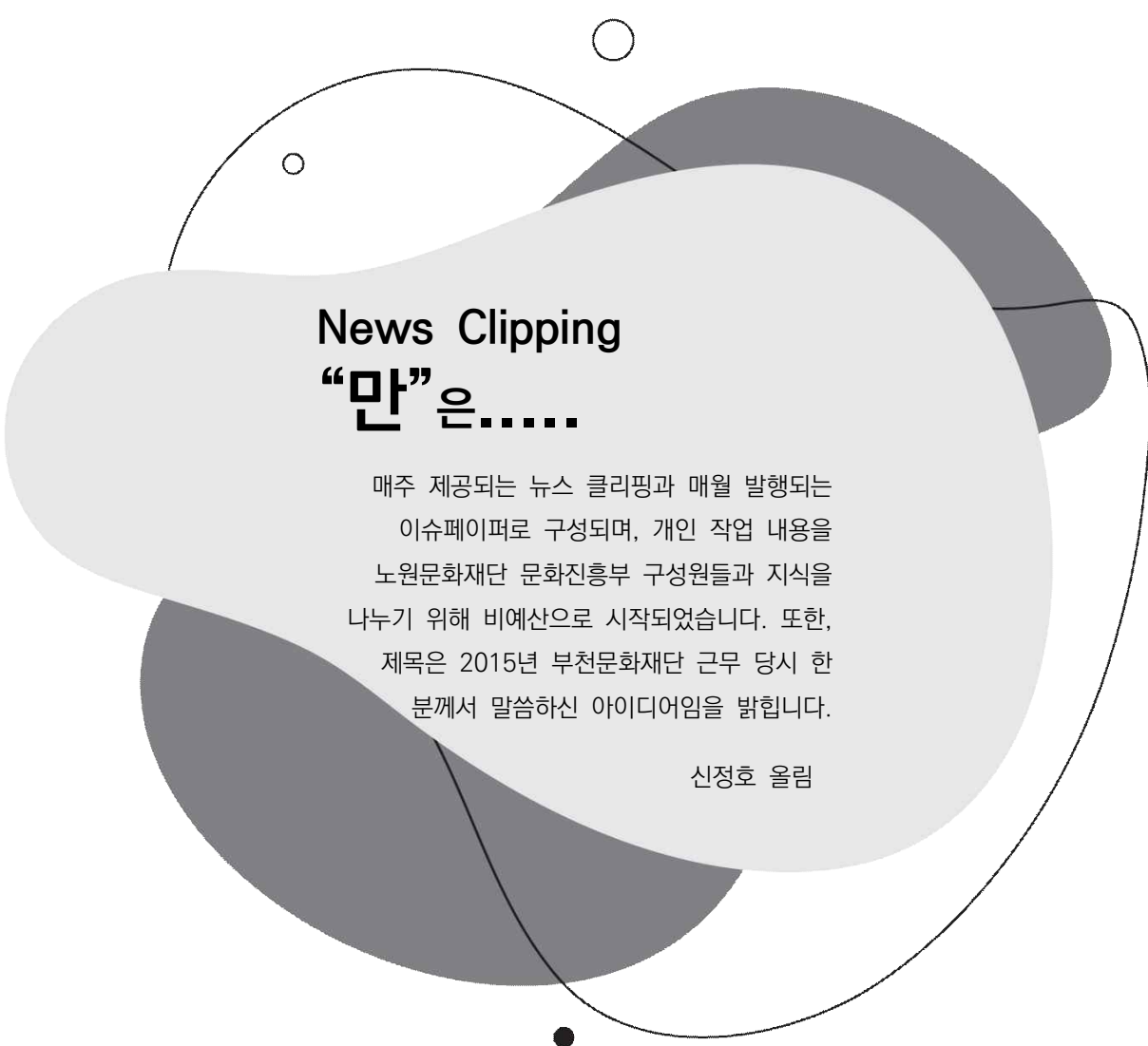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2026.02.09.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2026년〉

(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2
 (제42호) 성과 이후의 문화정책, 무엇을 재설계할 것인가 9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16

〈2025년〉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21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23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26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31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36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41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45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49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54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58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63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67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71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75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80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85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89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93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97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101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105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	109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113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117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121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125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129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133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136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139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142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145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147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150
(제06호) 티켓 플레이션 우려 속 공연시장 성장, 국제 미술시장 위축, 1인 가구 증가로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152
(제05호) 초 개인화AI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155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157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159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161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163

(제43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1. 핵심 키워드

키워드	주요 내용	키워드	주요 내용
성과 확산 vs 기반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성과, 관광·소비 파급, 문화경제 이벤트 소비, 구조 축적, 지속가능성 	재정분권과 운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비율 23.1%(2할 자치) 운영비·인건비 구조 추야, 단년도 공모화
수입형 흥행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분관, 블록버스터 전시 관람객 중심, 기획력 공백, 공공성 논쟁 	문화재단 등 독립성과 정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 일정, 재단 이사회 논란 행정 중립성·전문성 훼손
국립문화시설 유치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립 중심, 운영 체력 부족 지역 연계, 기획권, 상시 인력 	지역 기반 문화경제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극 3특, 문화누리카드 15만원 골목·원도심·공간재생 사례
기초예술 생태계 병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형 공연장 부족 창작-유통-향유 단절, 레퍼토리 미축적 	사회문제 대응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청년 53.7만 명 연결·예방 인프라로서 문화
시장 성장과 제도 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르 분류 논란, 통계 신뢰성 암표 규제 풍선효과, 유통 구조 왜곡 		

2. 핵심 쟁점 정리

구분	주요내용	쟁점
성과는 커졌지만, 무엇이 남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K-콘텐츠 성과는 관광·소비·현금 유통(210조 원)으로 확장 그러나 지역에 인력·공간·제도로 축적되지 못함 정책 성과가 단기 지표 소비에 머물 위험 	성과를 ‘확장’이 아닌 ‘축적’으로 전환할 설계 부재
해외 분관·블록버스터, 흥행 이후가 비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전시는 관람객 유치에는 효과적 그러나 국내 기획력, 교육·연구, 컬렉션 축적과의 연결 미흡 공공미술관이 흥행 플랫폼으로 기능할 위험 	공적 예산이 남기는 것이 ‘관람객 수’인가 ‘기획 자산’인가
국립문화시설 유치의 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시설 유치는 지역의 오랜 요구 하지만 건립 이후(운영 인력, 기획 권한, 지역 예술계 연계, 구조가 취약하면 ‘방문 인증 공간’ 전략 등) 	건립 중심 정책에서 운영 중심 전환 필요
기초예술의 구조적 병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형 공연장 부족으로 유통의 ‘허리’ 붕괴 대형·소형 양극화 → 지역 투어·레퍼토리 축적 불가 선언 중심 정책과 현장 인프라 간 괴리 	기초예술은 지원이 아니라 유통 구조의 문제
커진 시장, 뒤쳐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장르 분류 논란 → 통계 신뢰성 약화 암표 규제 이후 해외·비공식 리셀 이동 플랫폼 집중으로 대관료·종속 우려 확대 	흥행 확대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함
재정분권 없이는 지속성도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비율 23.1% → 운영비 자율성 부족 문화정책이 사업비 중심으로 쪼개짐 인건비·공간 유지비 확보 불가 	지역 문화의 지속성은 재정 구조의 문제
문화예술의 독립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선거 전후 공연·축제 중단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논란, 낙하산 인사 정책이 ‘지속’이 아닌 ‘상황’으로 작동 	문화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
문화는 이제 ‘연결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청년 사회적 비용 연 5.3조 원 디지털 중독, 고립 문제 확산 문화공간·예술교육·생활문화의 예방 기능 부각 	문화정책을 복지·예방·연결 전략으로 재정의

3. 결론 : “K-콘텐츠의 성공은 증명됐지만, 이를 지역에 남기는 정책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의 문화정책은 성과를 소비하고 있는가, 축적하고 있는가. K-콘텐츠의 확장은 지역 문화의 체력으로 남고 있는가.

(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K-콘텐츠는 이제 경제의 언어가 되었지만, 성과를 떠받치는 문화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해외 분관·블록버스터, 국립시설 유치, 기초예술 강화 모두 흥행을 넘어 기획력·인프라·제도로 축적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만들 수 없다. 지금의 문화정책은 성과를 소비하고 있는가, 축적하고 있는가. 우리의 노력은 과연 무엇으로 남고 있는가.

○ K-콘텐츠 성과가 관광·소비로 확장된 문화경제 효과

- "BTS보다 먼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 세워"...케데헌,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아니뉴스24, 2026. 02.02.)
 - 넷플릭스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 K팝 작곡진 최초로 그래미 '비주얼 미디어 OST' 부문 수상
- 케데헌 보러 온 방한객 덕에...시중현금 4년만에 최고 찍었다(이데일리, 2026. 02.05.)
 - 금리 인하·소비쿠폰·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시중 현금 210조 원, 4년 만에 최대치 기록

○ 해외 블록버스터 유치 vs 공공미술관의 기획력·공공성 논쟁

- 품피두가 오면 우리의 '취향'도 수입될까? [김희선의 글로벌 K컬처 이야기⑬](데일리안, 2026. 02.06.)
 - 해외 미술관 분관 유치의 성패는 브랜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와 국내 기획 역량 강화에 달렸다는 지적
- [손영욱의 컬처 아이] 30억 데미안 허스트 전시가 던진 질문(국민일보, 2026. 02.05.)
 - 공공미술관의 역할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흥행 중심 블록버스터나 vs 국립미술관의 기획 주도·공공성 강화를 둘러싼 논쟁

○ 기초예술 생태계 강화와 국립문화시설 유치, 정치 논쟁을 넘어 '시민의 문화'로

- 기초 공연예술 창작 역량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초예술 생태계 구축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1.30.)
 - 문체부·기재부, 국립예술단체와 간담회 열어 기초 공연예술 창작·유통·향유 선순환과 중장기 지원, '27년 예산 반영 검토
- 국립 문화시설 3종 세트 광주에 등지트나...(남도일보, 2026. 02.02.)
 - 광주 국립현대미술관·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관 유치 추진, 특별법 근거로 현실화 기대
- [현장의 시각]정치의 논쟁 넘어 시민의 문화로 가야(경상일보, 2026. 02.02.)
 - 대통령·문체부 발언을 두고 '더홍1962' 지원 여부를 둘러싼 시와 민주당 간 해석 충돌

○ 지원이 아닌 창작·유통·향유·재투자가 순환하는 지역 문화 기반 구축

- [사실] 지역 문화정책 중앙집중에서 벗어나야(인천일보, 2026. 02.02.)
 - 중앙 주도·단기 성과 중심 문화정책을 벗어나 지역 전문인력, 다년예산, 자율적 실험 보장 필요
- [강원의 미래를 캐는 문화광부]⑤·完 강원형 '문화광부' 육성을 위한 제언(강원일보, 2026. 02.02.)
 - 리셋행정 탈피해 전문인력·블록펀딩·다년계약으로 실패를 허용하는 지속 생태계 제안
- 지원에서 생태계로, 전북문화예술 10년의 새로운 전환점(전민일보, 2026. 02.02.)0
 - 전북 문화정책 단기 지원을 넘어 창작·유통·향유·재투자가 순환하는 생태계로 전환 필요
- [현장 속으로] 원도심에 문 연 '부산예술인지원센터'(부산일보, 2026. 02.02.)
 - 부산 원도심에 부산예술인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상담·창작·네트워킹 거점으로 3월 본격 운영

○ 5극 3특부터 골목까지, 문화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실험

- 정부, 5극3특 전략으로 일자리·문화·상권 패키지 추진...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역공연 710건 확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2.05.)
 - 정부 5극3특 전략으로 일자리·문화·상권 패키지 추진...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역공연 710건 확대
- 문화와 상권 손잡다... 청주시, '예술의 거리' 활성화 추진(모빅경제, 2026. 02.05.)
 - 청주시 예술의 거리 13곳·자율상권·홍보대사 협약으로 문화향유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 서울 강서구, 10억 투입 '마곡미술길' 조성(Btv news, 2026. 02.02.)
 - 강서구가 10억 원을 투입해 마곡·발산 일대를 예술 기반 '마곡미술길'로 조성
- 200만 원 들고 시작한 '작당', 300억 기적 됐다... 충주 '관아골'의 반란(오마이뉴스, 2026. 02.04.)
 - 200만 원 출발 청년 주도 거버넌스로 충주 관아골이 300억 도시재생 성과 달성

○ 폐교·폐점에서 체류·창작·문화로 이어지는 공간 재생

- '폐교의 변신은 무죄'(강원일보, 2026. 02.02.)

- 삼척시 폐교 노곡분교를 리조트·웹툰 워크숍 센터로 재생해 체류형 관광과 창작 거점 조성, 생활인구 유입 추진
- 전북은행, 폐점 활용해 지역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브릿지경제, 2026. 02.04.)
 - 전북은행이 군산 폐점 지점을 미술관으로 전환해 도시재생과 지역 근대미술 활성화

○ 디지털 중독의 반작용, 온라인 통제에서 오프라인 공동체로

- “청소년 SNS 중독 설계” 결국 법정 서는 메타-구글(동아일보, 2026. 02.03.)
 - 미국서 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설계 혐의로 수천 건 소송 직면…패소 시 수조 원대 배상 가능
- “핸드폰 말고 골목으로” Z세대가 ‘경찰과 도둑’을 하는 이유(데일리안, 2026. 02.02.)
 - 당근 커뮤니티로 모인 Z세대, 오프라인 놀이(경찰과 도둑 놀이 등)로 몸·관계 회복하며 느슨한 공동체 형성

○ 대학·로컬 기반 창업으로 일자리 만드는 ‘국가 창업 생태계’ 전환

- 테크·로컬창업 양대축으로 일자리 창출…K자성장 한계 넘는다(매일경제, 2026. 01.31.)
 - 정부가 ‘대국민 창업오디션’으로 5천명 발굴·투자하고, 딥테크·로컬창업 거점 확대해 일자리 창출 추진
- [국가창업시대] “대학과 문화예술 창업”(데일리브리프, 2026. 02.03.)
 - 대학을 창업 플랫폼으로 활용해 로컬 문화예술 창업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DB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창업 생태계 정비 필요

○ 공연시장 팽창 속 통계·장르 기준 재정비 과제

- ‘장르 세탁’ 논란 공연, 공연 통계 시스템에서 연극으로 재분류(SBS, 2026. 01.30.)
 - ‘장르 세탁’ 논란 후 KOPIS가 공연 장르를 재분류,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 K-콘서트·글로벌 뮤지컬 흥행… 예스24, 공연 티켓 판매액 5년 연속 증가(yes24, 2026. 02.05.)
 - 예스24 2025 공연티켓 판매 30%↑(5년 연속). 콘서트36%·전시40%↑

○ 지역 서사에서 세계 무대로: ‘한국적 이야기’로 확장되는 K-뮤지컬 실험

- 부산경남 ‘아지매’가 직접 쓰는 뮤지컬(부산일보, 2026. 02.08.)
 - 부산·경남 문화기관들이 손잡고 서울 창작뮤지컬을 지역 배우 8명 중심으로 재해석해 10~11월 부산·경남 순회공연 추진
- 달성문화재단, ‘빨간 마후라’ 주인공 유치곤 장군 일대기 뮤지컬 제작(대구일보, 2026. 02.08.)
 - 달성문화재단이 유치곤 장군의 삶과 애국정신을 다룬 창작뮤지컬을 국비 7천만 원 지원으로 제작해 11월 공연
- 김해문화의전당, 작품 유통·창작 뮤지컬 ‘판 키운다’(경남도민일보, 2026. 02.04.)
 - 김해문화의전당이 국비 2억9천만 원을 확보해 검증 작품 유통 확대와 소규모 창작 뮤지컬 제작
- “K뮤지컬, 韓정서 보편성 담아야 세계서 통해”(서울경제, 2026. 02.04.)
 - K-뮤지컬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국적 서사를 보편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과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 창작·흥행은 증명됐지만, 제도는 아직…K-뮤지컬 ‘다음 단계’의 과제

- 성과는 쌓였는데 제도는 공백…뮤지컬 산업 “다음 단계 준비할 때”(ZNET KOREA, 2026. 02.04.)
 - ‘한국 뮤지컬, 성과는 성장했지만 법·제도·장기 지원체계는 미비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정비가 필요
- ‘더 미션: K’ 초연인데 이 반응? 세종문화회관이 터졌다(스포츠투아, 2026. 02.05.)
 - 초연 창작 뮤지컬 콘서트 ‘더 미션: K’, 3일간 1만 명 동원하며 역사 소재 공연의 대중성과 가능성 입증
- [현장 속으로] 부산서도 통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기적(부산일보, 2026. 02.05.)
 - 토니상 6관왕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부산 대극장에서도 매진 행렬로 지역 흥행력 입증

○ 압표 규제 이후의 사각지대, 공연 유통은 어디로 가나

- 티켓베이는 막고 중국 리셀은 그대로…공연법 개정안의 빈틈 [D:이슈](데일리안, 2026. 02.05.)
 - 공연법 개정으로 압표를 전면 금지했지만, 해외·비공식 리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져
- 티켓 예매 플랫폼 3사, 대학로서 ‘공연장 삼국지’(이데일리, 2026. 02.02.)
 - 티켓 예매 플랫폼 3사의 대학로 공연장 진출로 자본·마케팅 확대 기대와 대관료 인상·플랫폼 종속 우려가 공존

○ 정치 일정·시설 공백 속에서 예술인의 생계와 중형 공연장 인프라가 동시에 흔들려

- 중립도 좋지만 당장 ‘생계’가…지방선거 앞두고 시름 깊어지는 예술계(일요신문, 2026. 01.30.)
 -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우려로 공연·축제가 중단되며, 공공지원에 의존하던 예술인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
- 올림픽공원 보수로 2026년 공연장 대관난 심화, 서울아레나 개장에도 중형 공연장 확충 시급(THE FACT, 2026. 02. 08.)

- 올림픽공원 보수로 2026년 공연장 대관난 심화, 서울아레나 개장에도 중형 공연장 확충 시급
 - 성동구치소 5000석 잠실팍시티 공연장 탈바꿈(조선일보, 2026. 02. 02.)
 -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2000억 민자 투입, 5000석 중형 공연장 '잠실팍시티' 추진
 - 경산시민 숙원사업 경산문화예술회관 드디어 착공(경북매일, 2026. 02. 02.)
 - 경산문화예술회관 민간 536억 투입해 착공...978석 공연장 등 2028년 준공 예정
- 일본은 기업 컬렉션을 공공자산으로 전환하는데, 한국 미술계는 물납제·아트페어 모두 실행 전략 부재
- 모네 '수련' 팔고 '로스코 룸'...미술품 공공화 나선 日 기업 DIC(뉴시스, 2026. 02.06.)
 - 일본 DIC가 기업 미술 컬렉션을 매각 대신 공공 전시·보존으로 전환하며 민간 컬렉션 공공화 모델 제시
 - 실효성 없는 물납제? 이류 키아프?...불어난 몸집만큼 쌓이는 과제(이데일리, 2026. 02.04.)
 - 한국화랑협회 50주년에도 물납제 실효성 부족, 키아프 국제 경쟁력 한계, 구체적 실행 전략 부재가 핵심 과제로 지적
- 동네서점·시민문화공간의 생존 갈림길
- "지역 문화공간으로 남고 싶어"...지역 서점의 꿈(단비뉴스, 2026. 02. 02.)
 - 지역 서점 남포문고가 무료 독서·문화공간 운영으로 지역 문화를 지켜왔지만, 임대료 상승과 서점 감소로 존속 위기에 놓여
 - '우리 동네 책방에서 작가를 만나다'... 인천문화재단, 책담회 서점 모집(인천투데이, 2026. 02. 05.)
 - 인천문화재단이 동네책방 책담회를 65회로 확대해 3~9월 운영, 회당 80만 원 지원
 - 인천 시민문화예술공간 설자리 좁아진다(기호일보, 2026. 02. 02.)
 - 시 문화공간 지원 예산 6.7억→3억 축소...지원처 60곳서 30곳으로 반감
- '5대 문화강국' 비전 속 핵심 기관 수장 공백과 산업 중심 인사로, 문화정책 리더십·공공성 논란이 교차
- 비전만 있고 리더 없는 '5대 문화강국'[생생확대경](이데일리, 2026. 02.05.)
 - 콘진원·국립국악원 등 핵심 문화기관 수장 장기 공백으로 정책 집행 차질 우려, '5대 문화강국' 비전 흔들
 - '바위섬'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위촉(아시아경제, 2026. 02.05.)
 - 가수 김원중(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장관급)에 위촉
 - 문체부 장관도, 관광공사 사장도 기업인...'문화도 산업 역량 수혈'(머니투데이, 2026. 02.05.)
 - 기업인 출신 문체부 장관·관광공사 사장 임명으로 문화의 산업화·성과 중심 정책 강화 기대와 예술계 우려 교차
- 문화관광재단 확대가 잇따르지만, 정치 갈등·낙하산 논란으로 재단 운영 신뢰와 전문성 위기
-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본격 출범...기존 문화재단 6년여만에 확대 개편(인천일보, 2026. 02.03.)
 - 조례 개정으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 관광·축제 기능 강화하며 6월 말까지 기존 조직 유지 후 출범
 - [사설] 양주시의회, 묶어 둘 문화재단을 왜 합의했나(경기일보, 2026. 02.06.)
 - 양주시 문화관광재단 예산·출연 동의가 인사 논쟁에 막히며 정치가 문화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
 - 이종관 인천문화재단 대표, 또 '역량부족' 도마... 시의회 업무보고서 '망신'(인천투데이, 2026. 02.04.)
 - 인천문화재단 대표의 업무 이해 부족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시의회에서 재점화되며 재단 운영 신뢰성에 의문 제기
-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재단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요구가 확산
- [기자메모] 시장님 선거캠프(충부일보, 2026. 02.01.)
 - 지방선거 앞두고 단체장이 문화재단을 선거캠프처럼 활용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행정 독립성 촉구
 - 원주 예술계,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에 전문성 보완 촉구(강원도민일보, 2026. 02.08.)
 - 원주 예술계 문화재단 이사회에 현장 전문가 배제됐다며 선임 기준·절차 공개와 전문성 강화 촉구
- 환경을 고민하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역할
- 기초지자체 69% '얼치기' 탄소계획...벼락감축이거나 눈속임(뉴스트리코리아, 2026. 02.05.)
 - 226개 기초지자체 중 40% 감축목표는 23곳(8%)뿐, 평균 목표 25.3%로 부실
 - 국립극장, 창작자 위한 '공연 의상·무대 소품' 온라인 대여 서비스(이데일리, 2026. 02.05.)
 - 국립극장 공연의상 9천점·소품 4천점 온라인 대여 개시...제작비 절감·자원 재활용
 - 서대문구,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공간 '이어쓰기 선반' 운영(핀포인트뉴스, 2026. 02.02.)
 - 서대문구가 주민 기증·교환 방식의 '이어쓰기 선반'을 운영해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

- **독서국가·문화도시, 선언은 넘치고 공간은 부족**
 - [기자의 창] 도서관 한곳이 4만여명 감당하는데 '독서국가'라 할 수 있을까(한국NGO신문, 2026. 02.02.)
 - 독서국가 선언과 달리 **도서관 접근성은 낮아, 생활권 도서관 확충** 등 실질적 독서 인프라 강화가 필요
 - 인천 시민문화예술공간 설자리 좁아진다(기호일보, 2026. 02.02.)
 - 작년 6억 7천만 원 투입해 60여 곳 지원했으나 **올해 3억으로 축소**돼 지원 대상 30여 곳으로 감소
- **사회적 고립 비용의 가시화와 연결 중심 예방 전략의 필요**
 - 집에만 있는 '은둔 청년' 사회적 비용 연간 5.3조 원(YTN, 2026. 02.05.)
 - 은둔 청년 53만 7천명으로 집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5조 2,870억 원**에 달한다
 - 고독사 예방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시작된다(이로운넷, 2026. 02.06.)
 - 네덜란드·영국·일본은 외로움·고립을 **국가전략·법제화**하고 **사회적 연결 중심 예방**을 추진
- **예술교육의 제도 설계와 근거 기반 검증**
 - 교육부, 초1·2 음악·미술 '통합교과 유지'...예술교육 단체들 '반발'(뉴스1, 2026. 02.06.)
 - **교육부 초1·2 음악·미술 통합교과 유지** 방침을 밝히자, 예술교육단체가 **예술교육권 후퇴**라며 **교과서 재설계 촉구**
 - 전북문화관광재단, 치유 문화예술교육 효과 '객관적 검증'(전라매일, 2026. 02.06.)
 - 전북 치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55명 스트레스 지수 평균 10.2% 개선**, 의료 협업으로 효과 객관화
- **불평등 심화 통념과 다른 글로벌 소비 데이터**
 - 21세기 세계는 '뚝뚝'에 더 평등해지고 있다(민들레, 2026. 02.05.)
 - 세계 소비 불평등 25년간 절반 감소. **상위10%·하위50% 격차 40배→18배**, 한국은 **완화**
- **2할 자치에서 3할 자치로, 지방재정 구조 전환의 갈림길**
 - "제발 이 사업 하나만..." 예산철마다 정부 높은 문턱에 읍소 [다시, 지방분권](부산일보, 2026. 02.05.)
 - 지방세 비율 23.1%에 그친 '2할 자치' 구조로 **국고보조금 의존 심화**,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 10% 미만 한계 드러나
 - 행안장관 "재정분권·권한이양 계획...지방세 30% 앞당길 것"(국제신문, 2026. 02.05.)
 - 행안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착수**...재정분권 확대·지방세 비중 30% 조기 달성 추진
- **도시 문화정책 산업연계형 성장전략과 생활기반 문화생태계 구축으로 이원화**
 - 전주시, 영화·관광·스포츠 연계 '글로벌 전략' 제시(전민일보, 2026. 02.02.)
 - 전주시 **영화·관광·스포츠를 연계한 K-컬처 산업도시 전략** 제시하며 글로벌 문화 경쟁력 강화 추진
 - 사라진 양구의 겨울...비어 있는 콘텐츠 경쟁력(강원일보, 2026. 02.03.)
 - 겨울축제 소멸로 콘텐츠 경쟁력 약화, 스포츠 편중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유입** 위한 **겨울 콘텐츠 재발굴 필요**
 - "삼합(三合)이 맞아야 공공공간이 된다"... 도만사가 발견한 도시를 바꾸는 방식(따주에서 신문, 2026. 02.06.)
 - 도만사는 7평 **팝업으로 주민 '경험'을 만들고, 하드·콘텐츠·커뮤니티 '삼합'으로 작동**하는 공공공간을 확산
- **노동시간 단축과 고령자 노동의 동시 확장**
 -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일한다...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연합뉴스, 2026. 02. 04.)
 - 고령자 고용률 70.5%로 첫 70% 돌파, 정년 65세 **연장 논의는 노사 이견**으로 지연
 - 금요일 1시간 빠른 퇴근...시중 은행 올해 '주4.9일제' 도입(YTN, 2026. 02.02.)
 - 5대 은행 금요일 1시간 단축하는 **주 4.9일제 도입**...근무시간 단축 흐름 확산
- **영국 청각접근권 보장 위한 공연장 청취보조 인프라 의무화**
 - 영국은 어떻게 '들을 권리'를 일상으로 만들었나(더나은미래, 2026. 02.03.)
 - 영국은 공연장까지 **청취보조시스템을 기본 인프라로 운영**해 '들을 권리'를 보장
- **지역 문화재원 다변화 위한 공공-민간 메세나 거버넌스 구축**
 -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 위해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서울신문, 2026. 02.06.)
 - 경기도 문화예술 재원 **다변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성** 제기

(한주를 정리하며)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K-콘텐츠는 이제 상징을 넘어 경제의 언어가 되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의 그레미 수상은 한국 창작 역량이 글로벌 기준으로 인정받았다는 분명한 신호다. 그 파급은 공연장과 스트리밍을 넘어 관광과 소비로 확장되며, 문화 성과가 거시 경제지표와 함께 해석될 정도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성과의 확장과 달리, 이를 떠받치는 문화의 기반이 충분히 두꺼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최근 문화 관련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지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문화정책의 무게중심과 운영 책임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다. 성과는 빠르게 집계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설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해외 우수 미술관 분관 유치나 초대형 블록버스터 전시는 단기간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논점은 전시 성과 여부가 아니다. 브랜드를 들여오는 순간, 지역의 기획력과 문화적 취향 형성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시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와 국내 기획 역량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수입형 성과는 이벤트로 소진되고 지역 문화의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공공미술관을 둘러싼 흥행 논쟁 역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예산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국립문화시설 유치 또한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국립문화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다. 그러나 국립시설의 간판이 곧바로 시민의 문화권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운영 인력과 프로그램 기획권, 지역 예술생태계와의 연계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립시설은 '방문 인증 공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건립 여부가 아니라, 건립 이후의 운영 체력이다.

기초예술 역시 선언만으로는 선순환을 만들 수 없다. 정부가 기초 공연예술의 창작과 유통을 강화하겠다는 중장기 방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장은 이미 병목을 겪고 있다. 공연장 대관난, 특히 중형 공연장 부족은 창작과 유통의 허리를 비운다. 대형과 소형만 남은 구조에서는 지역 투자와 레퍼토리 축적이 어렵고, 기초예술의 지속성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공연 장르 분류 논란이나 압표 규제 이후 나타나는 풍선효과 우려는, 문화시장이 커졌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통계 기준과 유통 규칙이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흥행이 확대될수록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기준과 제도의 정비다. 제도가 뒤처질 때 부작용은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난다.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재정분권과 책임 구조다.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낮은 현실에서 지역은 문화정책의 지속성을 스스로 설계할 재정적 자율성을 갖기 어렵다. 문화는 사업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운영비와 인건비, 공간 유지라는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할 때 문화정책은 공모사업으로 쪼개지고 단년도 성과에 매달리게 된다.

여기에 문화 거버넌스의 정치화 문제까지 겹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제와 공연이 멈추고, 문화재단 운영이 정치적 해석에 휘둘리는 현실은 문화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 정책이 '지속'이 아니라 '상황'으로 작동하는 한, 지역 문화는 확장이 아니라 동요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환의 핵심은 분명하다. K-콘텐츠의 성과를 지역 문화의 체력으로 축적하는 설계다. 해외 분관과 블록버스터 전시는 기획력과 교육, 연구, 지역 협력을 남기는 조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국립문화시설 유치는 운영 권한과 지역 연계 구조가 동반되어야 한다. 기초예술은 선언이 아니라 중형 인프라와 다년 구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성장한 시장에는 통계와 유통 규칙이 따라붙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이 스스로 지속성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의 책임 단위가 재배치되어야 한다.

성과가 커질수록 문화정책은 더 공공적이어야 한다. 이제 문화정책은 "얼마나 흥행했는가"를 묻는 데서 멈출 수 없다. "무엇이 남았는가"를 묻는 정책만이 K-컬처의 다음 10년을 가능하게 만든다.

지금의 문화정책은 성과를 소비하고 있는가, 축적하고 있는가? 우리의 노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